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김영미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요약문 1

1. 문제제기 3

2. 청년기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4
    1) 청년기 불평등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관점
    2) 청년 세대 내 기회불평등의 원천: 가족, 젠더, 분절노동시장

3. 연구자료와 방법, 청년층의 내부구성 7

4. 청년층의 노동시장 기회 불평등 11

5. 청년층의 가족 형성 기회의 불평등 16

6. 청년층의 기회 불평등 인식의 세대 내 차이 19

7. 토론 및 결론 2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요약문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청년기는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동시에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따라서 일/경력의 요구와 가족/사적 요구를 한꺼번에 다루어야 하는 시기이다. 청년기의 노동시장 기회와 가족형성의 기회의 평등은 청년기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이후 생애과정의 삶의 질을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복지제도의 특징, 산업사회 발전단계 상의 특징 때문에 세대 간 불평등보다는 세대 내 불평등이 클 예상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기회와 가족 형성의 기회 불평등을 분석한 본 연구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청년층에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노동시장 기회와 가족 형성의 기회 모두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출신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들은 서울소재대학 진학, 대학에서의 경험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 출신의 청년들에 비해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에서도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 가족 배경의 영향력은 가족 형성의 기회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들은 데이트경험도 상대적으로 적고 결혼과 출산 의사 등에서도 뚜렷하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젠더 격차이다. 청년 여성과 남성은 교육 성취(학벌, 대학에서의 경험)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성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가족 형성의 기회에 있어 젠더와 학력의 상호작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은 저학력일수록 결혼, 출산 의사가 낮은 데 반해 여성들은 고학력일수록 결혼, 출산 의사가 낮은 특징 등이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청년층에서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이 계층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중장년, 노년층은 가족 배경과 현재 자신의 주관적 계층 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데 반해 청년층은 매우 뚜렷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청년층에서는 가족 배경이 낮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대한 기대가 낮았으며 또한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결혼과 출산 의사가 뚜렷하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흔히 오늘날 청년들을 삼포세대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청년층 내 삼포현상이 계층화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청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족배경의 효과는 한국사회가 개방적

사회(open society)에서 폐쇄적 사회(closed society)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일자리 기회와 가족 형성 기회 모두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가족 배경과 젠더 등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결과가 이후 생애과정 전반에 걸친 누적적 (불)이익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도록 청년기의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적 개입과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1. 문제제기

가정과 학교에서 보호와 교육을 받던 청소년기를 지난 성인 남성과 여성들은 생애과정의 새로운 단계, 청년기로 접어들게 된다. 20대에서 30대 후반까지를 아우르는 청년기는 흔히 청춘, 인생의 황금기로 불리지만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는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동시에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따라서 일/경력의 요구와 가족/사적 요구를 한꺼번에 다루어야 하는 시기(Lothaller, 2010:109)”로 불안감과 중압감이 매우 큰 시기이다. 독립적 성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이 시기의 남성과 여성들에게 기회의 평등은 매우 중요하다. 청년기에 노동시장 기회와 가족형성의 기회에 따라 청년기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이후 생애과정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선 노동시장의 기회, 즉 안정적으로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자리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지 여부는 장기적인 생애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김태기, 남재량, 2000; 최율, 이왕원, 2016). 가족 형성의 기회 역시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으로 삶의 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맞벌이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싱글가구와 맞벌이가구 간의 가족 소득의 격차가 증가하게 되며,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 및 여가생활이 조직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 가족관계를 갖게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에 사회문화적 삶의 질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심리적 안정감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Blossfeld et al., 2006). 이 연구는 한국 청년층이 일과 가족형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얼마나 평등한 기회를 누리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년층의 기회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많은 경우 청년층과 기성 세대 간의 세대 간 기회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의 청년층을 명명하는 많은 담론들, 88만원 세대, 삼포세대, N포세대, 달관세대 등 역시 청년층의 내적 이질성 보다는 기성 세대와의 집단 간 격차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청년층의 노동시장 및 가족 형성 기회는 국가의 복지제도와 노동시장 조건에 따라 상당한 국가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세대 간 불평등과 세대 내 불평등의 정도의 차이이다. 개인의 생애과정에 대한 거시적 조건의 규정력을 강조하는 쇼블(Chauvel, 2010)은 대륙유럽의 조합주의적 복지국가형에서는 “내부자 세대(insider generation)”와 “외부자 세대(outsider generation)” 간의 세대 간 불평등이 큰 반면 미국 등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세대 간 불평등 보다는 세대 내 불평등이 큰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적 부조 및 사회복지 안전망이 성기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미국형에 가까운 우리 사회에서 역시 세대 내 불평등이 큰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의 세대 내 기회불평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의 산업자본주의 발전단계 상의 특징 때문이다. 60년대에 시작된 급속한 산업화 기간 동안에 한국사회는 이례적으로 높은 세대 간, 세대 내 사회이동성을 보여왔다. 사회이동의 급격성(사회이동의 속도가 빠름)과 과격성(사회이동의 폭이 넓음)으로 특징지워지는 이 시기를 거치는 동안 한국사회는 높은 사회적 개방성을 보이는 한편 사회계층이 미형성되

는 혹은 지연되는 특징을 보여왔다. 그러나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조정이 완료된 1980년대부터는 다양한 직업적 분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차등적 배분 및 라이프스타일의 분화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 시기에 태어난 현재의 청년세대(1980-90년대생)는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부모들을 가진 첫 번째 세대이며 가족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편차가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첫 세대이기도 하다. 현재 청년층의 가족 배경의 광범위한 차이는 노동시장, 가족 형성을 둘러싼 다양한 계기들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리라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청년층 내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는 한국사회에서 개인들의 기회구조를 형태지우는 또다른 균열의 원천들, 젠더와 노동시장 위치 등과 상호작용하며 세대 내 기회불평등의 복합성(complexity)를 생산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다음 2장에서는 청년기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다.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통해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의 거시적 조건을 논의하고 청년층 내 기회불평등을 낳는 균열의 원천으로서의 가족, 젠더, 분절 노동시장의 때로는 독립적인 때로는 상호작용하는 효과들에 대해 논의한다. 3장에서는 자료와 방법론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불평등의 양상을 가족배경, 성별, 노동시장 위치 등의 조건에 따른 다양한 기술통계들을 통해 확인하고, 5장에서는 가족 형성에서의 기회불평등의 양상을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분석한다. 6장에서는 청년층 내부에서 기회공정성 및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치적 태도, 삶의 만족도 등에서 다른 어떤 연령집단에서보다 큰 차이를 낳고 있는 가족 배경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7장에서의 토론으로 청년층의 기회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

2. 청년기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청년기 불평등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관점

오늘날 청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비단 한국 사회의 문제만은 아니다. 구미의 경우에도 청년들의 높은 실업율, 높은 비전형적인 주변부 일자리 취업률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넓은 시각에서 보자면 8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경제의 글로벌화, 신자유주의적 고용구조 변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불황 등 거시경제적 변화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최근 코호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선진산업사회들에서 50-70년대 이른바 황금의 30년 기간 동안에 노동시장에 입직했던 세대와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에 노동시장에 입직한 세대 간에는 기회구조의 세대 간 격차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의 순환에 따라 행운의 세대(lucky generation)과 불운의 세대(less lucky generation)의 순차적 반복이 세대 간 격차를 낳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Myles, 2002).

그러나 실제 구미 각국 청년들의 노동시장 상황은 공적부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등 복지 정책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Chauvel, 2010; Chauvel and Schroder, 2014).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면서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의 위험을 유연하게 용납하되 높은 수준의 사회안전망과 재교육을 통해 삶의 질의 하락을 막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들에서는 청년들의 취업률, 평균임금 등이 높은 편이며 따라서 세대 간 불평등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반면 복지정책이 사회보험 가입자들을 경기 변동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나 가족주의적 복지국가(합쳐서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으며 복지정책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 중장년층과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여 고용과 연동되어 있는 복지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의 격차도 매우 커 '내부자 세대'와 '외부자 세대' 간의 불평등이 큰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기존 입직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없는 미국 등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들에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노동시장 내에서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변동의 여파를 시장을 통한 임금가격 조정 기제를 통해 상당히 해소하여 세대 간 불평등 문제는 적은 편이나 각 세대 내 경제적 불평등이 매우 큰 편이다. 쇼블과 슈뢰더는 (Chauvel and Schroder, 2014) 유럽국가들에 대한 코호트 분석을 통해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들에서 사민주의적,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들에 비해 1975년 경기후퇴기의 시작 이전과 이후 세대 간 실업율 및 생애소득의 격차가 특별히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세대 간 격차는 경기후퇴기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경제가 호황이거나 성장 중일 때는 세대 간 격차는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소득이전 기제들을 통해 쉽게 조정된다. 경제불황기 혹은 구조조정기에 발생하게 되는 세대 간 기회구조의 격차는 그러나 국가의 역할을 통해 완화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 이때 국가 역할의 핵심은 기존 노동시장 재직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느냐 아니냐에 있다. 국가가 노동시장 재직자들을 보호하는 (기존의) 정책들을 고수할 경우 재직자들과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과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는 보수주의형 세대 갈등이 심각해지게 된다. 한국은 내부자 세대와 외부자 세대 간의 세대 간 불평등이 큰 보수주의적 복지국가형과는 달리 세대 간 불평등 보다는 세대 내 불평등이 큰 미국형의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첫째, 한국에서 90년대 후반 경제 위기 이후 이루어진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특징을 보면 제조업에서 경제적 자원 및 노조의 조직력이 집중된 대기업에서 내부노동시장이 축소, 유지되어 온 것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조직적 내부자(organizational insiders)를 보호하는 내부노동시장의 제도적 장치들이 형해화되어 왔으며(김영미, 한준, 2008; 약간 상이한 관점으로는 정이환, 2015), 둘째 사회보험 등 국가의 복지제도도 역사가 짧아 장기적으로 제도적 혜택을 받는 가입자들의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는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하에서는 구조조정기의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코호트가 있기 어렵고 모든 코호트가 경기불황의 여파를 받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세대 간 불평등 보다는 세대 내 불평등이 사회 문제의 핵심이 된다.

2) 청년 세대 내 기회불평등의 원천: 가족, 젠더, 분절노동시장

한국에서 청년층의 세대 내 기회불평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의 산업자본주의 발전단계 상의 특징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청년들은 경제적 호황기(1980-90년대)에 태어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대중소비가 확산되는 시기에 유소년기를 보내다가 10대 사춘기 시기에 금융위기를 맞은 후 경제불황기에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세대이다. 이 세대는 60년대 1차 산업 중심의 경제에서 7-8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탈산업화를 거치며 한국사회에서 다양화된 직업적 성취에 따른 계층 분화가 본격화된 1980-90년대에 자녀를 출산한 현재의 중장년층(1950-1960년대 생)의 자녀 세대이기도 하다. 에릭슨, 골드소프 등 세대 간 사회이동 분석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사회는 초기에 산업화라는 대규모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한 구조적 이동의 증가로 세대 간 사회이동이 증가하다가 산업화가 성숙해질수록 구조적 이동(structural mobility)은 감소하고 세대 간 사회이동의 개방성(exchange mobility)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이른바 '지속적 유동성(constant flux)'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Erikson et al., 1992). 한국의 산업화 경험 속에서 보자면 1980년대-1990년대는 급속한 사회이동이 완료되고 지속적 유동성의 시대로 접어드는 단계의 초입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청년층은 그 전의 어떤 세대 보다도 다양한 직업군의 부모들을 갖게 된 첫 세대이며 가족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큰 격차와 라이프스타일의 분화가 당연시된 사회에서 사회화의 주요시기인 유소년기과 청소년기를 보낸 첫 세대이다. 현재 청년층이 갖고 있는 가족 배경의 상대적으로 큰 차이는 이 코호트가 이전 코호트들 보다는 훨씬 계층화된 기회구조 속에서 사회화과정을 겪었으리라 예상하게 한다. 이러한 코호트-특정적 조건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가족형성을 둘러싼 다양한 계기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경험적으로 규명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개인들의 기회구조를 특정한 방식으로 형태지우는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은 젠더이다. 주된 활동이 공간이 성적 중심의 능력주의적 평가와 공식 문화로서의 성평등주의가 자리잡고 있는 학교이며 상대적으로 성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왔던 청소년기를 보낸 남성과 여성은 청년기에서 매우 성별화된 사회적 공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교육 성취에 있어서는 남녀 간 차이가 없어졌으나 경제적 성취에 있어서는 남녀 간 격차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인 한국사회에서 청년 여성들은 매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이미 남성을 앞지를 정도로 교육 성취를 이루었으나 이러한 한국교육의 우등생이 한국의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열등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 모순적 상황의 이면에는 공고한 젠더구조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공적 생산의 영역과 사적 재생산의 영역을 구분하고 성별화하는 프레이밍으로서의 젠더의 문제는(Ridgeway, 2011)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젠더 구조는 차별하는 고용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돌봄의 사회화도 충분하지 못한 한국사회의 제도적 조건(Chang, 2004) 속에서 큰 변화없이 온존하고 있다. 이 속에서 가사와 육아의 부담은 여전히 여성 개인의 몫으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돌봄의 젠더 불균형

은 여성들을 직장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2등 직원, 열등한 근로자로 만들고 있다. 생애과정 상 결혼, 출산, 양육 등이 집중되어 있는 청년기는 여성들의 일-가족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며 이러한 극심한 갈등 속에서 여성들의 비자발적, 반자발적 경력단절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여성의 경력단절은 성별화된 규범이 강하여 일-가족 갈등이 심한 환경에 있을수록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남성의 경제활동의 고조기에 많은 청년 여성은 경력단절, 경제활동의 중단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청년 내 남성과 여성의 기회불평등이 매우 크다는 의미이다. 경제적 성취에서의 성별 기회불평등은 곧 남성과 여성의 생애소득의 격차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연금 등 사회보험 접근권에서의 차이로 인한 은퇴 후 노년기에서의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성별화된 프레임은 청년의 가족형성의 기회불평등에서도 남녀의 차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남성성이 생계부양자 역할로, 여성성이 모성으로 등치될 때 이로부터 이탈된 남성과 여성은 연애 및 결혼상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일자리구조 역시 청년 내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조건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고용구조조정의 핵심은 수량적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는 대규모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이어졌다. 이와 동시에 대기업의 분사화, 외주화로 대기업의 고용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중소기업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위계적 원하청 권력관계로 묶여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증가하였다. 대기업 일자리와 중소기업 일자리 간의 이동이 거의 없는 분절적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청년층은 첫직장을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생애소득과 사회적 소득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청년층 내에서 노동시장 위치에 따라 경제적 보상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가족 형성 기회의 불평등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젠더, 분절적 노동시장이라는 조건들은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상호작용을 통해 청년층 내 기회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세대 내 불평등의 구체적인 양태, 특히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불평등의 복합성은 쉽게 예측되지 않으며 귀납적 과정을 통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배경, 젠더, 노동시장 위치 등을 주요 변수로 청년층 내 일과 가족형성의 기회 불평등을 분석하되 학력, 학벌, 지역 등의 보조적 변수들도 사안에 따라 기회의 격차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될 경우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문에서는 유의미한 격차가 나타나는 경우를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3. 연구자료와 방법, 청년층의 내부구성

이 연구는 동그라미재단의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기회불평등조사는 2016년 전국 만17세 이상 만 74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비례할당(성/지역/연령)하여 표집 후 웹서베이(CAWI, Computer Aided Web Interview)한 자료이다. 표집틀로 이용된 한국리서치의 MS(Master Sample Panel)은 전국적으로 성, 연령, 직업, 학력, 소득분포의 분포적 특성을 반영한 33만명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계청

의 국가승인통계조사의 표본설계에 활용된 바 있다(통계청,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 2009-2015).

청년에 대한 정의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며 포괄하는 연령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유동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청년기를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입직하여 독립적 생계부양을 시작하며 가족형성을 도모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로 정의하며, 이 연구에서 청년은 20세에서 39세로 정의한다(Lothaller, 2010 참고). 청년기의 상위한계를 39세로 정한 것은 최근 입직의 지연, 만혼, 만산 등 생애과정의 전환이 늦춰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체 사례 3520명의 응답자 중 중 청년층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32%(1122명)이다. 모집단의 성/지역/연령 분포를 반영한 가중치가 제공되어 있으며 모든 분석 결과에 적용되었다.

청년기 기회 불평등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 청년 세대 내 기회불평등의 주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가족 배경과 젠더 그리고 노동시장 위치이다. 청년들 중 상당 수는 이미 노동시장 입직을 마친 상태이며 본인의 노동시장 위치에 따른 계층 분류가 가능하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현재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성취 및 가족형성, 사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계층은 본인의 가족 배경이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응답자가 중학교 3학년일 때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홀링스헤드(Hallingshead, 1975)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Socio-Economic Status Index, 이하 SES)를 측정하였다. 이 변수는 아버지가 생계부양자, 어머니가 가정주부였던 가구의 경우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아버지의 직업에 부여한 위계적 점수와 교육수준에 부여한 위계적 점수의 가중합, 맞벌이가구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직업 점수와 교육 점수의 가중합의 평균으로 측정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변수는 본인의 성취에 기반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가 성장기에 어떠한 사회경제적 가족 배경 속에서 사회화되었으며 기회의 제약을 경험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지역은 크게 서울지역, 인천경기지역, 영남지역,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였다.

<표1> 청년층(20세-39세)의 내부 구성

변수	전체 평균	남성 평균	여성 평균
여성	0.48		
고졸이하	0.15	0.14	0.15
전문대졸	0.35	0.36	0.33
대졸	0.40	0.38	0.42
대졸이상	0.10	0.11	0.09
취업자	0.60	0.63	0.56
취업자 중 정규직	0.73	0.75	0.71
비정규직	0.20	0.16	0.25
자영업	0.07	0.09	0.04
구직자	0.21	0.21	0.21

비경제활동	0.19	0.16	0.23
소득	242.96	269.56	211.03
서울	0.22	0.21	0.22
인천 경기	0.31	0.31	0.31
영남권	0.25	0.25	0.24
기타 지역	0.23	0.22	0.23
기혼	0.38	0.33	0.43
가족 배경(SES Index)	37.92	37.88	37.96
하층	0.20	0.21	0.20
중간층	0.35	0.31	0.37
상층	0.45	0.48	0.43

<표1>은 청년층의 내적 구성을 학력, 경제활동, 소득, 지역, 혼인상태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전체의 48%가 여성으로 남성 비율이 약간 더 높다. 지금의 2-30대는 성감별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남녀 성비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커졌던 1980년대-90년대에 태어난 코호트로, 이러한 청년층의 남초 현상은 실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인구학적 성비 불균형은 청년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연애, 결혼의 대상자를 찾고 가족 형성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학력분포를 보면 청년층은 50%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유하고 있는 대단히 고학력화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학력화는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의 고용율은 60%이며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청년은 21%, 학업 등의 이유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은 19% 정도이다. 고용율에서의 남녀 격차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남성은 63%가 취업 상태인데 반해 여성은 56%에 그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정규직은 73%, 비정규직은 20% 정도이며 7% 정도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취업자 내부 구성의 남녀 차이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 취업자 네 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 근로자일 정도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16%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청년층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약 243만원 정도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약 270만원 정도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211만원 정도로 남녀 간 격차가 있으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약 78%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할 때의 여성 임금비율이 약 63% 정도인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득에서의 젠더 격차는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은 분포를 보면 청년층은 특징적으로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지가 집중되어 있다. 31%가 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2%가 서울에, 25%가 영남권에 23%가 기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지역 분포에서의 성별 격차는 거의 없다.

청년층 중 기혼자는 38%이다. 세부 연령집단으로 보면 20대(20-29세)에서의 기혼 비율은 약 5%에 불과하며 성별 격차도 매우 커 20대 남성의 기혼율은 2%, 여성은 7% 정

도이다. 30대(30-39세)의 기혼비율은 67% 정도인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1976년에서 198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세 명 중 한 명 정도는 39세까지도 혼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성별 격차 역시 큰 편으로 30대 여성의 경우 기혼비율은 74%인데 반해 남성의 경우에는 12%p가 낮은 62%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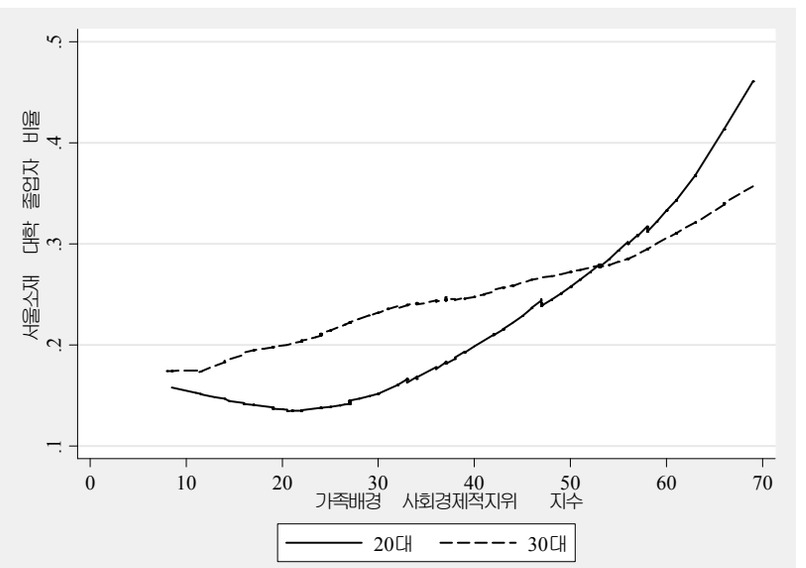
홀링스헤드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는 청년층 전체 평균이 37.92 (표준편차 15.07)이며 남녀 간의 격차는 거의 없다.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하면 60대 이상 노년층은 평균 33.63(표준편차 13.48), 4-50대 중장년층은 33.88(표준편차 14.31)이며 10대 청소년층은 42.06(표준편차 14.76)으로 최근세대로 올수록 SES 평균은 증가하고 표준편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에서는 필요에 따라 SES 지수를 연속변수로 쓰기도 하고 하층, 중간층, 상층, 세 집단으로 범주화하여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때 세 집단 범주화의 기준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각 세대 표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전자는 SES 절대값의 효과를 강조한 경우이며 후자는 각 세대 내 상대적 위치의 효과를 강조한 경우이다. 이 연구에서는 세대 간 비교를 위해서 전자의 분류방식을 택하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SES 값을 삼등분하여 세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따라서 SES 평균이 증가한 청년층에서는 하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4. 청년층의 노동시장 기회 불평등

이 장에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상황과 세대 내 기회불평등의 양상을 분석한다. 현재의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이전에 이미 학력 성취 및 대학생활의 경험 등에서 상당히 계층화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령집단의 대학진학율이 70%를 웃도는 상황에서 대학 진학 여부 자체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의 서열화된 대학구조 속에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은 대학에 진학하느냐 여부 보다는 어떤 대학에 진학하느냐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1].

<그림1 >은 응답자의 가족 배경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력과의 연관 관계를 보여주는 LOWESS(Locally weighted scatterplot smoothing curve) 평활 곡선이다.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가 높은 가족에서 자란 응답자일수록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졸업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배경과 학벌의 연관성은 30대 보다 20대 사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가족배경과 서울소재대학 졸업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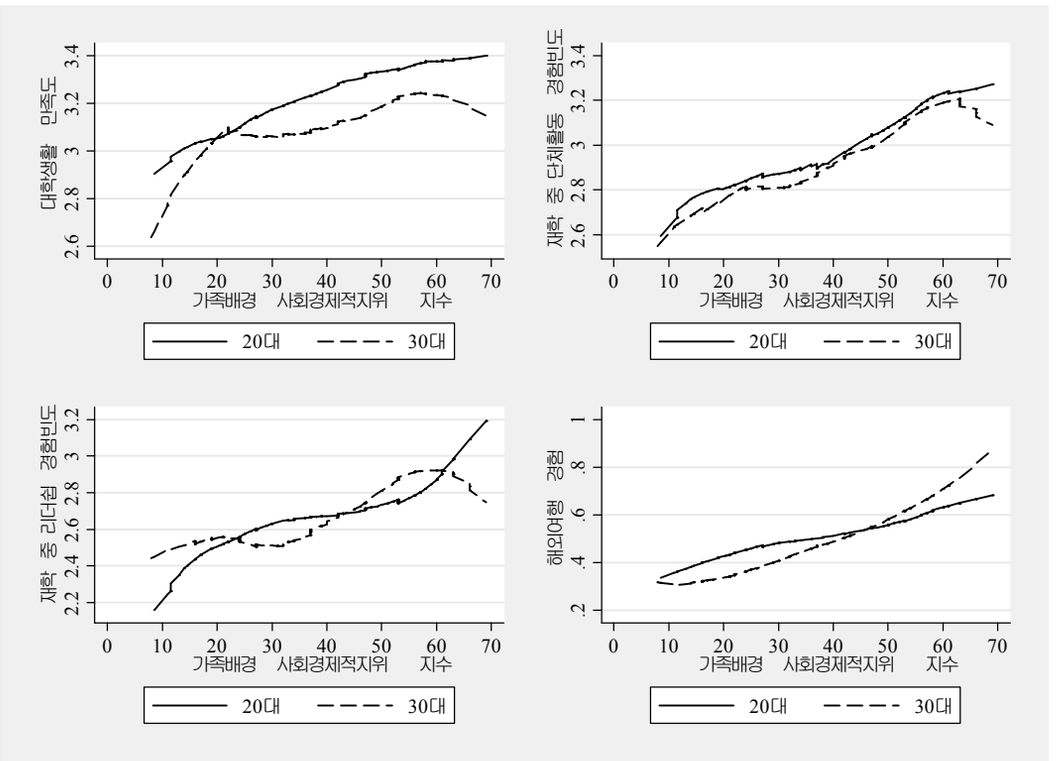


가족 배경은 청년들의 대학생활(2년제, 4년제 모두 포함) 경험에서도 큰 차이를 낳고 있다.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년들이 더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30대보다 20대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학 재학 중 동아리 등 단체활동의 경험 빈도 역시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의 선형적인

1) 본 연구의 자료를 통해 보면 청년층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력에 미치는 효과 보다는 학벌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 대학진학률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중간층, 상층이 각각 36%, 44%, 44%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노동시장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보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위대학, 여기서는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졸업비율을 보면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의 경우 13%에 그치는 반면 중간층에서는 15%, 상층에서는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계를 보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의 청년이 단체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 재학 중 리더의 위치에 서 본 리더쉽 경험 빈도 역시 사회경제적 지위와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20대에 어학연수 등 해외여행을 경험해본 비율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강한 선형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림2> 가족배경과 대학생활 경험의 격차



주1) 대학생활만족도는 대학생활에 만족하였는가하는 질문에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2) 단체활동빈도는 대학생활 중 교내외 동아리 등 단체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1)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3) 리더쉽 경험빈도는 대학생활 중 리더에 서 본 경험을 얼마나 하였는가는 질문에 1)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4) 해외경험은 20대에 외국을 여행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없으면 0, 있으면 1, 더미변수로 측정된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연구 자료에 기초해서 청년층 고용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0대 청년층 남성의 고용율은 63%이며 실업 등으로 인한 구직자의 비율은 20%,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16% 정도이다. 반면 청년층 여성의 고용율은 56%로 남성에 비해 7%p 낮고 구직자 비율은 21%,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3% 정도이다. 구직자는 남녀 모두 2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의 경우에 학업과 군대 등으로 인해 20대에, 여성의 경우에는 전업주부가 증가하는 30대에 집중되어 있다.

<표2>는 가족 배경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학업과 경제활동이 혼

재되어 있는 20대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의 청년일수록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학업을 마치고 경제활동이 본격화되는 30대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의 청년일수록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30대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고용율이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의 경우 58%, 상층의 경우 71%). 여성들의 경우 출산, 육아가 집중되어 있는 30대에 경력 단절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으며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가족 배경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2> 가족배경과 경제활동

	20대			30대		
경제활동	취업	구직	비경활	취업	구직	비경활
남성						
하층	44%	25%	31%	90%	9%	1%
중간층	32%	45%	24%	91%	8%	1%
상층	34%	28%	38%	93%	7%	0%
여성						
하층	54%	40%	6%	58%	10%	32%
중간층	55%	28%	18%	61%	5%	34%
상층	43%	43%	14%	71%	5%	24%

청년층 사이에서는 학력에 따른 경제활동 기회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대졸 및 대졸 이상의 경우 고용율이 80% 정도인데 반해 고졸 이하의 고용율은 62%, 특히 전문대 졸의 고용율은 4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도 학력에 따른 고용율의 차이는 있으나 남성만큼 크지는 않다.

<표3> 청년층 내 학력에 따른 경제활동의 차이

	남성			여성		
	취업율	구직율	비경제활동율	취업율	구직율	비경제활동율
전체	63%	20%	16%	56%	21%	23%
고졸이하	62%	20%	18%	53%	14%	32%
전문대졸	40%	28%	32%	49%	27%	24%
대졸	81%	18%	1%	61%	21%	18%
대졸이상	80%	6%	14%	67%	10%	24%

한편 청년 여성들 사이에서는 경제활동의 기회 불평등을 낳는 또 다른 조건이 지역이다. <표4>은 지역 별로 청년층 남성과 여성의 고용율, 실업율, 비경제활동율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지역 간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데 반해 여성의 경우에

는 지역 간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남권 청년층 여성의 고용율(48%)은 서울지역 청년층 여성의 고용율(65%)과 비교할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 여성의 출산, 육아기 경력 단절 문제는 잘 알려져 있는 바이나 여성 경력 단절에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영남권 청년 여성들의 고용율이 눈에 띄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성별화된 규범이 강한 환경에서 청년여성의 일-가족 갈등이 더욱 심각하며 이것이 청년여성의 빈번한 경력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 영남지역의 문화적 환경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가설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규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4> 청년층 내 성별, 지역별 경제활동의 차이

	남성			여성		
	취업율	구직율	비경제활동율	취업율	구직율	비경제활동율
전체	63%	20%	16%	56%	21%	23%
서울	63%	19%	18%	65%	18%	17%
인천경기	65%	20%	16%	60%	18%	23%
영남권	64%	19%	18%	48%	24%	28%
기타지역	61%	25%	14%	51%	26%	23%

이상의 기술 통계들을 통해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가족 배경과 학력, 성별,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안정적이고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고임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도, 불안정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저임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의 분절적인 노동시장 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고용의 질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초입에 있는, 따라서 인적 자본의 주요 요소인 경력의 격차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집단 내 소득 이질성이 작은 청년층 내에서도 노동시장 내 위치에 따른 임금 격차를 악화시키는 조건이 되고 있다.

<표5>은 청년층 내 취업자의 내부 구성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평균 임금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한 청년남성의 75%, 여성의 71%가 정규직으로 취업 중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청년 남성의 경우 16%, 여성의 경우 25%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거의 10%p 가까이 높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의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 정규직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291만원인데 반해 남성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179만원으로 비정규직 남성은 정규직 남성 소득의 6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 정규직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222만원, 비정규직은 162만원으로 비정규직 여성은 정규직 여성 소득의 73% 수준을 받고 있다.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 소득은 남성 정규직 소득의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층 내 종사상 지위와 성별에 따른 소득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5> 성별 취업자 내부 구성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남성	75%	16%	9%
여성	71%	25%	4%
월평균 소득 (만원)			
남성	291	179	259
여성	222	162	333

청년층 내에서는 학력에 따른 취업의 질에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표6>은 정규직 비율과 평균 소득으로 정의된 취업의 질의 학력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청년 남성의 경우 고졸 이하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64% 정도이며 월평균 소득은 225만원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전문대졸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취업한 비율은 68%, 평균소득은 229만원에 머물러 있는 반면 대졸의 경우 정규직 비율은 82%, 평균 소득은 292만원에 달하고 있다. 대학원졸의 경우 정규직 비율은 대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평균소득은 302만원으로 높은 편이다. 여성의 경우에 학력별 정규직 비율은 대졸 집단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편이다. 대졸 집단의 경우 여성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비율은 73%에 머물러 있어 대졸 남성과의 차이가 거의 10%p 정도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 간 평균 소득의 격차는 나타나지만 남성집단 보다는 작은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 대졸이 고졸이하에 비해 1.3배 정도 소득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2배 정도이다. 무엇보다 여성의 경우 모든 학력 집단에서 남성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2].

<표6 > 학력별 취업자 중 정규직 비율

	남성		여성	
	정규직 비율	평균소득	정규직 비율	평균소득
고졸이하	64%	225	68%	184
전문대졸	68%	229	68%	188
대졸	82%	292	73%	223
대학원졸	71%	302	74%	258

2) 청년층 내에서는 학력에 따른 차이 뿐만 아니라 대학졸업자 내에서도 학벌에 따른 경제활동율과 소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 남성의 경우 서울 소재대학 졸업자들의 고용율은 66% 정도이며, 취업자 중 정규직 비율은 77%, 월평균 소득은 301만원 정도인 데 반해 지방사립대 졸업자들의 고용율은 55%, 취업자 중 정규직 비율은 66%, 평균 소득은 224만원에 그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의 고용율은 54%, 취업자 중 정규직 비율은 70%, 평균소득은 250만원 수준이며 지방사립대 졸업자의 고용율은 58%, 취업자 중 정규직 비율은 67%로 서울소재 대학 출신자들과 비슷한 편이지만 평균 소득은 18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별 간의 임금 격차도 매우 뚜렷하며 성별 내부에 출신 대학 별 임금 격차도 뚜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5. 청년층의 가족 형성 기회의 불평등

최근 청년층을 둘러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 담론은 청년층 일반이 기성세대들과 비교할 때 겪고 있는 어려움, 즉 세대 간 기회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듯 보인다. 실제로 세대 간 혼인율, 출산율의 차이는 가족 형성 기회의 제약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청년층 내에서 '삼포' 현상은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연애, 결혼, 출산 등 가족 형성과 관련된 이벤트들의 경험, 태도(혹은 선호) 등에 있어서도 청년들은 상당한 내부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도 가족 배경과 학력, 노동시장 위치, 성별은 가족 형성 기회의 차이를 낳는 중요한 균열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성별은 청년 집단 내 인구학적 행태의 차이를 낳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며 가족 배경, 노동시장 지위 등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동학의 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표7>은 성별, 학력별로 연애 경험 및 결혼/자녀에 대한 태도의 평균을 비교하고 있다. 미혼자들 중 한 번도 데이트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 15%, 여성의 경우 10%이다. 앞으로 결혼을 할 것 같은가 하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미혼자들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 14%, 여성의 경우는 약간 더 높은 16% 정도이다.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 같은가 하는 질문에 0명이라고 답한 경우는 미혼 청년 남성들은 12%, 미혼 청년 여성들은 18%로 청년 여성들이 결혼 및 자녀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과 성별의 교호작용인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데이트 경험도 없고 결혼 의사, 자녀 의사도 낮은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 반해, 여성의 경우 데이트 경험을 제외하고는 결혼 의사, 자녀 의사에 있어 학력 간 차이가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출신대학 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데이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16%,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10% 수준으로 지방 소재 대학의 미혼 청년남성들의 데이트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제외하고는 출신대학 별로 결혼의사나 자녀의사에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서울소재 대학 출신의 경우 결혼의사나 자녀의사가 낮은 비율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7> 미혼 청년층의 성별, 학력별 연애, 결혼, 자녀에 대한 태도

		남성			여성		
		데이트경험없음	결혼의사없음	자녀의사없음	데이트경험없음	결혼의사없음	자녀의사없음
전체평균		15%	14%	12%	10%	16%	18%
고졸이하		20%	16%	11%	11%	11%	10%
전문대졸		22%	18%	16%	17%	20%	24%
대졸		9%	13%	11%	7%	15%	18%
대학원졸		3%	2%	5%	0%	16%	14%
전문대이상	지방소재	16%	14%	12%	10%	15%	17%
	서울소재	10%	14%	12%	12%	20%	23%

<표8>은 성별, 노동시장 지위별로 연애 경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미혼 청년들의 태도를 비교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정규직으로 취업 중인 미혼청년들은 데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가 4%에 불과한 데 반해 비정규직 취업자들은 그 비율이 두 배 이상인 10%에 달하고 있다. 현재 일자리 없이 구직 중인 경우에도 데이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27%나 되지만 비경제활동 중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35%로 늘어난다.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 비정규직, 구직 중이거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경우 정규직 취업자들과 비교할 때 뚜렷하게 결혼의사도 자녀의사도 없는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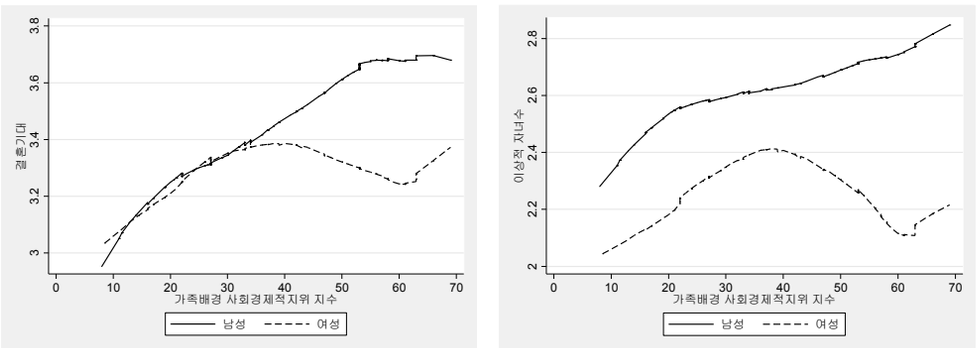
여성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데 일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데이트 경험이나 결혼의사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비정규직의 경우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의사가 정규직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구직 중인 미혼 청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와 비슷한 비율로 데이트 경험이 없는 비율도 높고 결혼의사나 자녀 의사가 없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성과 달리 그 비율들이 낮은 편이며 다른 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가장 낮은 편이다.

<표8> 미혼 청년층의 성별, 노동시장 지위별 연애, 결혼, 자녀에 대한 태도

	남성			여성		
	데이트경험없음	결혼의사없음	자녀의사없음	데이트경험없음	결혼의사없음	자녀의사없음
전체평균	15%	14%	12%	10%	16%	18%
정규직	4%	8%	5%	5%	16%	14%
비정규직	10%	14%	10%	5%	16%	21%
자영업	3%	9%	12%	8%	33%	25%
구직중	27%	24%	21%	27%	26%	34%
비경활	35%	19%	21%	7%	6%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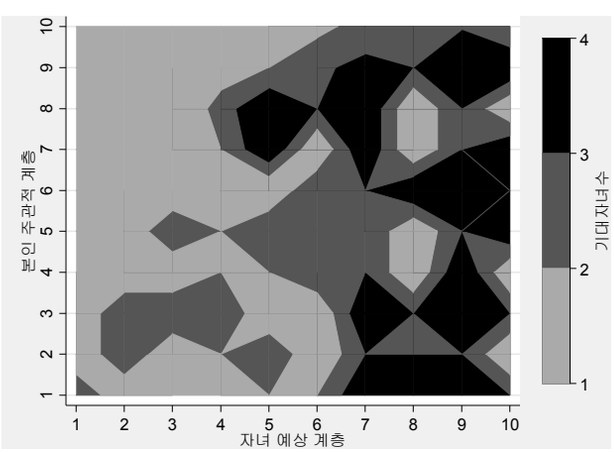
한편 미혼 청년층 사이에서 가족 형성과 관련된 기회의 불평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또다른 조건은 가족 배경이다. <그림3>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결혼 의사, 자녀 의사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결혼의사는 '앞으로 결혼을 할 것이다' 라는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것이며 자녀의사는 '앞으로 자녀를 몇 명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0명(무자녀)을 포함해 예상 자녀수를 응답한 문항으로 측정한 것이다.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패턴은 남성의 경우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결혼, 자녀에 대한 태도 간에 거의 선형적인 관계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족, 자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 배경과 결혼, 자녀에 대한 태도 간에 비선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 배경이 높을수록 결혼, 자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다가 가족 배경이 중간층을 넘어 상층으로 가면 오히려 결혼, 자녀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변하는 역 U자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3> 성별, 가족 배경 별 결혼, 자녀에 대한 태도



청년들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기대에는 현재 본인의 사회경제적 조건도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 세대에 대한 전망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 현재 본인의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자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때 결혼과 자녀에 더 적극적인 긍정의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는 결혼, 자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은 자신의 주관적 계층과 자녀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전망이 기대 자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등고선 그래프(contour graph)의 Y축은 현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1(매우 낮음)에서 10(매우 높음) 10점 척도에서 선택하게 하여 측정한 주관적 계층이다. X축은 자녀가 자신의 연령에 도달했을 때 어떠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통해 측정한 자녀계층에 대한 주관적 기대이다. 10X10 교차표의 각 셀에 해당되는 응답자들의 기대 자녀수의 평균을 구하여 비슷한 평균값끼리 등고선을 그려본 것이다. 가장 옅은 회색은 기대 자녀수가 0명-2명 사이, 중간 회색은 2명-3명, 짙은 회색은 3명 이상인 경우이다. 기대자녀수가 높은 짙은 회색이 주로 분포해 있는 곳은 주로 자녀계층에 대한 주관적 기대가 높은 셀들이다. 본인의 주관적 계층과 자녀계층에 대한 주관적 기대가 높은 경우도 기대 자녀수가 높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주관적 계층이 낮더라도 자녀계층에 대한 주관적 기대가 높은 경우에 기대 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그림4> 세대 간 사회적 이동의 기대와 기대자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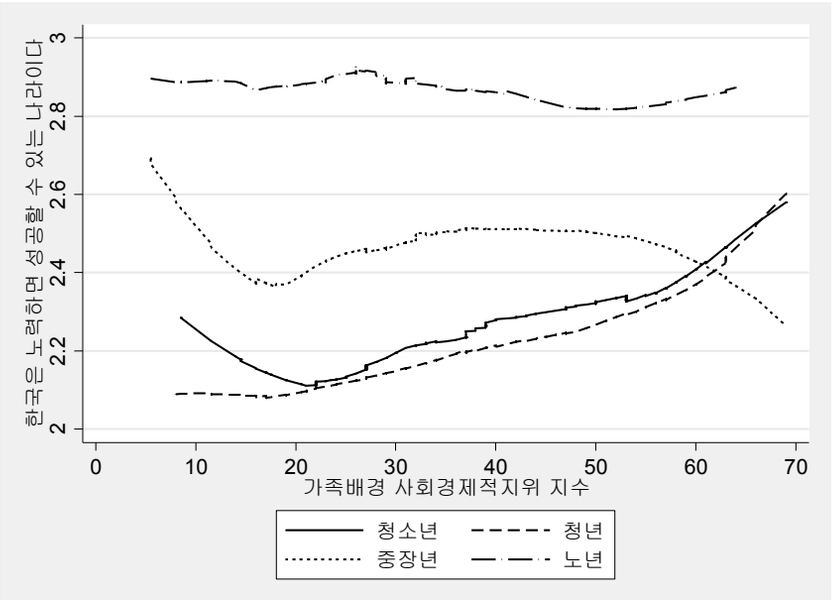
이러한 패턴은 미혼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기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 계층에 대한 주관적 기대가 높은 경우 본인의 결혼가능성에 대해 적극적 동의를 표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결혼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결혼, 자녀에 대해 적극적이며 그렇지 않을수록 소극적인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 차이 없이 남녀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청년층의 기회 불평등 인식의 세대 내 차이

앞서의 분석에서 객관적으로 측정된 노동시장 기회 및 가족 형성의 기회에서 청년층 내부의 격차가 매우 큰 편이며, 성별, 학력(학벌), 지역, 그리고 특히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독립적으로 혹은 상호작용을 통해 청년 내부의 기회구조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주관적 측면에서의 청년층 내부 변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객관적 기회불평등을 낳는 요인들이 청년들의 기회공정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치적 태도 등에도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나타난 가장 중요한 경향성은 한국 사회의 기회공정성에 대한 인식,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등은 가족 배경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장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에서 대단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5>은 가족 배경과 기회공정성 인식 간의 관계를 세대 별로 비교하고 있다. 한국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라는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기회공정성 인식이 응답자의 가족배경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살펴본 것이다. 노년층의 경우는 한국사회의 기회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가족 배경과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장년의 경우에도 기회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노년층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때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뚜렷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가족 배경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기회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편이다. 청년층은 기회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장 낮은 집단이며 기회공정성 인식은 가족배경과 선형적인 연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한국사회의 기회공정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증가할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내 가족 배경에 따른 기회공정성 인식의 격차는 매우 큰 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60점 이상으로 가장 높은 가족 배경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위 상태에 있는 중년층 보다 한국의 기회공정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이다. 청소년층도 청년층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5> 세대별 가족배경과 기회공정성 인식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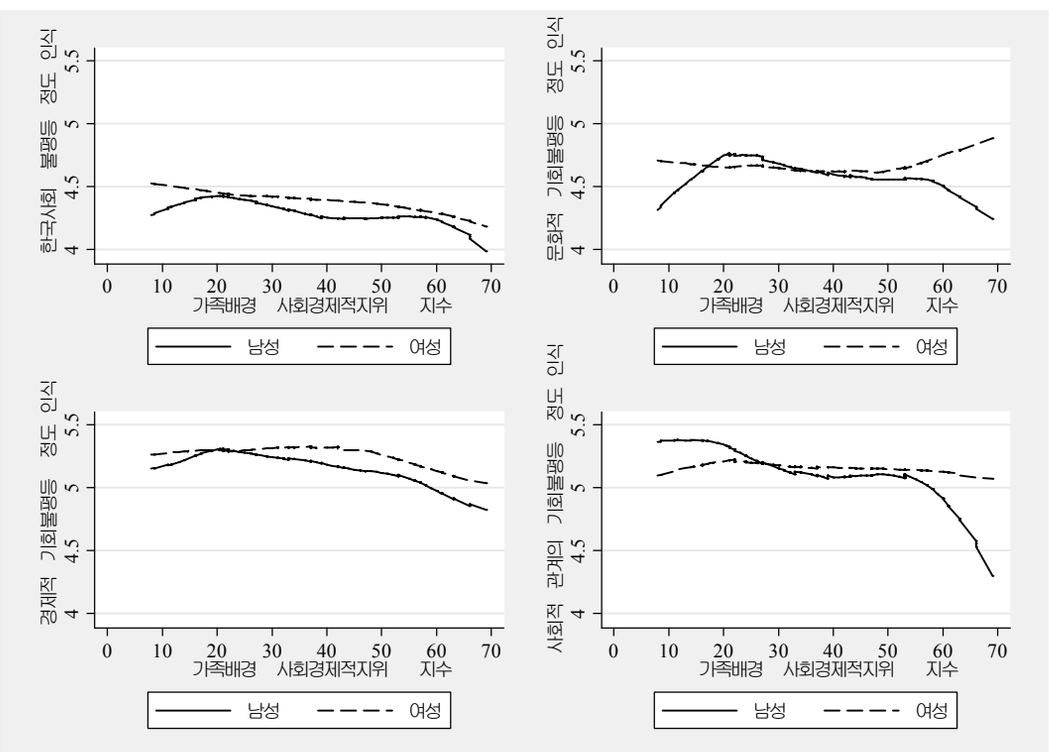
한국의 기회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가족 배경 외에 학력, 지역, 성별이 미치는 영향력을 청년층과 장노년층으로 구분해 살펴본 것이 <표9>이다. 가족 배경이 높을수록 기회공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대학원졸을 제외하고는) 기회공정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서울 보다는 지역에서(기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회공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는 경향이 있으나 가족 배경을 제외하면 학력, 지역 등은 기회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일관되다고 보기 어렵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청년층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한국사회의 기회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9> 한국사회 기회공정성에 대한 세대, 성별, 가족배경, 학력, 지역 간 차이

	청년기(20-30대)		장노년기(40대 이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가족배경				
하층	2.08	2.02	2.47	2.59
중간층	2.35	2.07	2.57	2.70
상층	2.38	2.22	2.58	2.57
학력				
고졸이하	2.37	2.12	2.62	2.70
전문대졸	2.29	2.10	2.50	2.47
대졸	2.26	2.07	2.39	2.50
대졸이상	2.31	2.25	2.61	2.71
지역				
서울	2.29	1.99	2.67	2.47
인천경기	2.30	2.07	2.43	2.52
영남권	2.33	2.15	2.59	2.74
기타지역	2.25	2.23	2.55	2.72

한국사회의 기회공정성에 대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젊은 세대에서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청년층 내부의 객관적 기회구조의 불평등이 주관적 인식에서의 격차로 발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불평등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는 다른 항목들에서도 청년층 내부의 주관적 인식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가 <그림6 >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항목은 한국의 전반적인 불평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는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것이며, 두 번째는 문화향유의 기회 불평등이, 세 번째는 취업과 진급에서의 기회불평등이, 네 번째는 인맥 등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기회불평등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각각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것이다. 기회불평등의 세부영역에 따라 심각도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상이하며 청년들은 특히 취업과 진급에서의 기회불평등과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기회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가족 배경이 낮을수록 심각성을 높게 평가하고 가족 배경이 높을수록 기회불평등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패턴은 문화적 기회불평등에 대한 청년 여성들의 반응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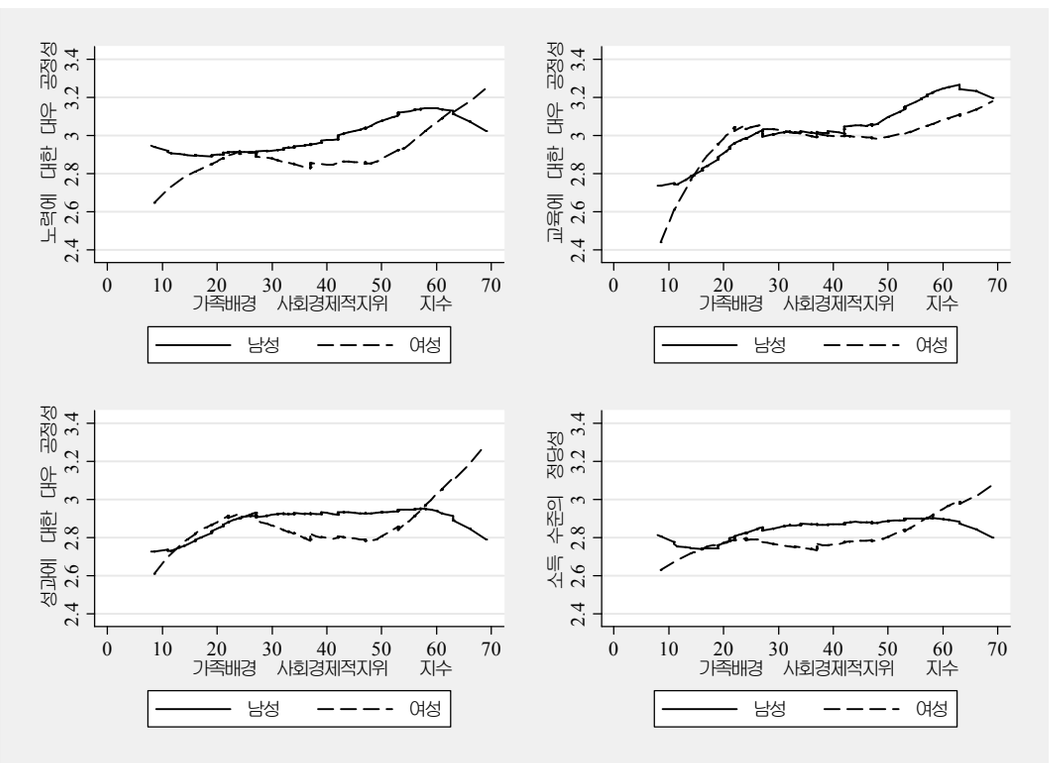
<그림6> 청년층 내 가족배경과 주관적 불평등 인식의 관계



한편 한국사회의 기회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는 독립적으로 취업자들 중 응답자 본인이 현재 받고 있는 대우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가족 배경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것이 <그림7>이다. 본인의 노력, 교육 수준, 성과만큼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대우 공정성과 본인의

현재 소득수준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소득수준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가족 배경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의 청년일수록 본인의 노력, 교육수준, 성과 모든 면에 있어서 현재 받고 있는 대우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 보다 여성의 경우에 가족 배경에 따른 대우공정성 평가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본인의 현재 소득수준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평균이 3점 이하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이 역시 가족 배경이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가족 배경과 대우 공정성 인식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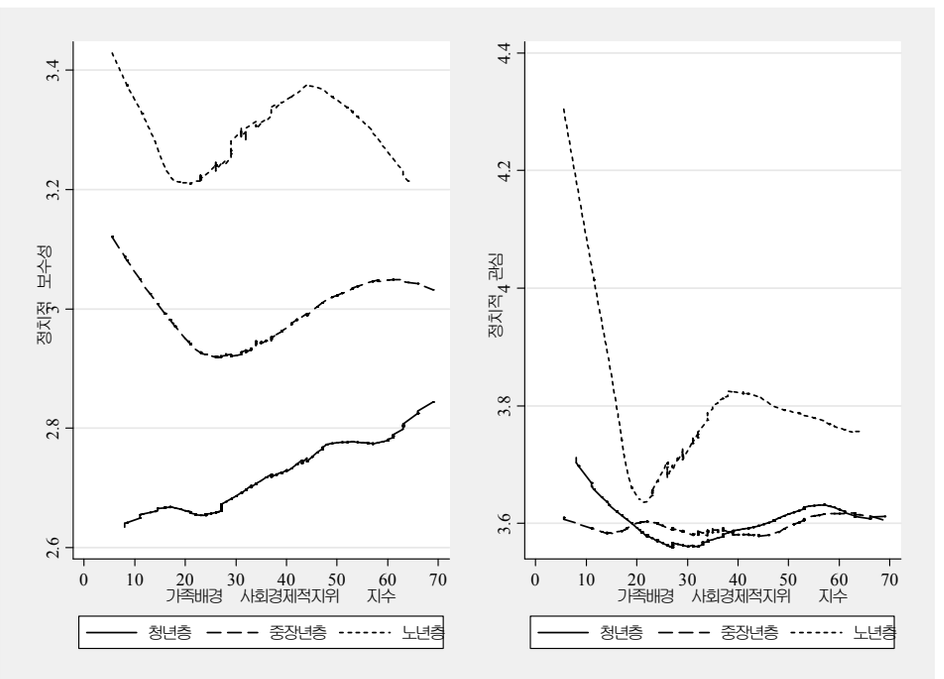


청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족 배경이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치적 태도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은 장노년층에 비해 단연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편이다. 그러나 청년층 내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치 성향의 차이는 어느 연령집단보다도 뚜렷하게 일관된 방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그림8>은 연령집단 별로 가족 배경에 따른 정치적 성향(1. 매우 진보적에서 5. 매우 보수적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변수)과 정치적 관심(1. 전혀 없다에서 5. 매우 많다)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모든 연령집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의 응답자일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가족 배경과 정치적 성향 간의 관계가 비선형적이며 가족 배경이 가

장 낮은 집단에서의 정치적 보수성이 높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에서는 가족 배경과 정치적 보수성 간의 선형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의 세대 간의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에서의 세대 간의 정치성향의 차이에 비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치적 관심도는 노년층이 단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중장년층과 청년층은 정치적 관심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흥미롭게도 중장년층을 제외한 노년층과 청년층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의 정치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 성향에서 가장 보수적이고(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노년층) 가장 진보적인(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층) 두 집단이 정치적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이다. 이례적인 이 패턴을 제외한다면 각 세대 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치적 관심이 높은 경향성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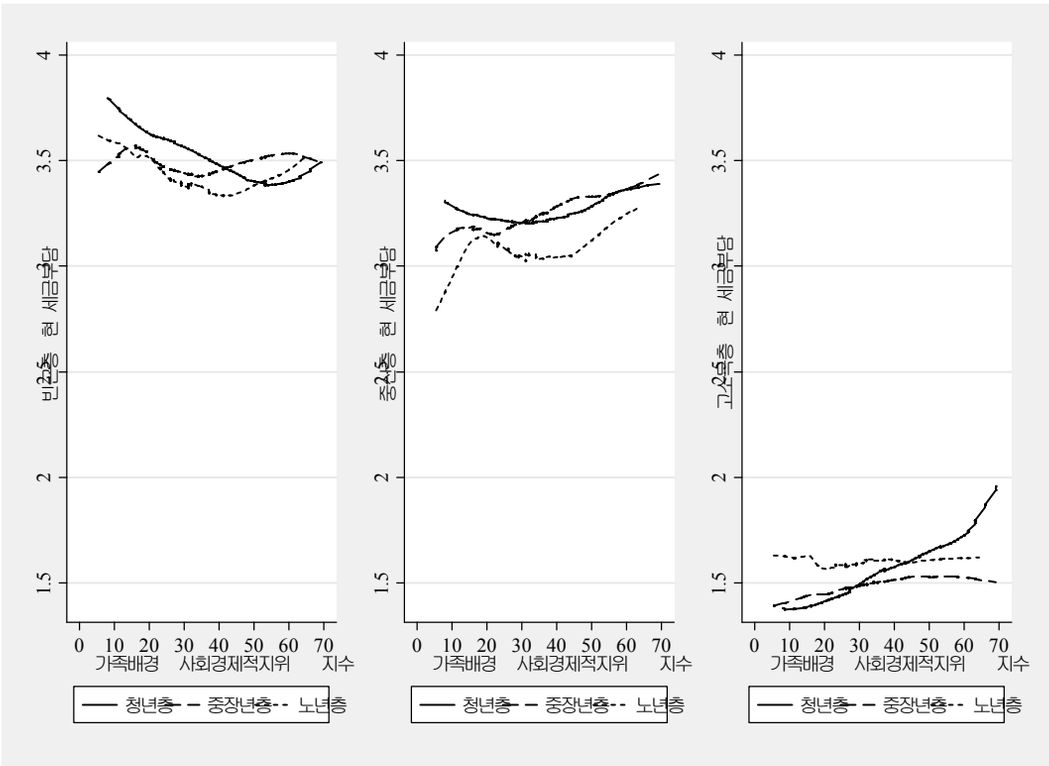
<그림8> 청년층 내 가족배경과 정치적 성향, 정치적 관심의 관계



청년층에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가족 배경과 정치적 보수성과의 관계는 계층 별 세금 부담에 대한 인식에서도 이어진다. <그림9>은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의 현재 세금 부담의 적절성에 대해서 1. 매우 적다에서 5. 매우 많다 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문항들에 대해 세대와 가족 배경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 빈곤층의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많고 부유층의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는 데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이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각 세대 내 가족배경의 효과를 보면 청년층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빈

곤층의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부유층의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경향성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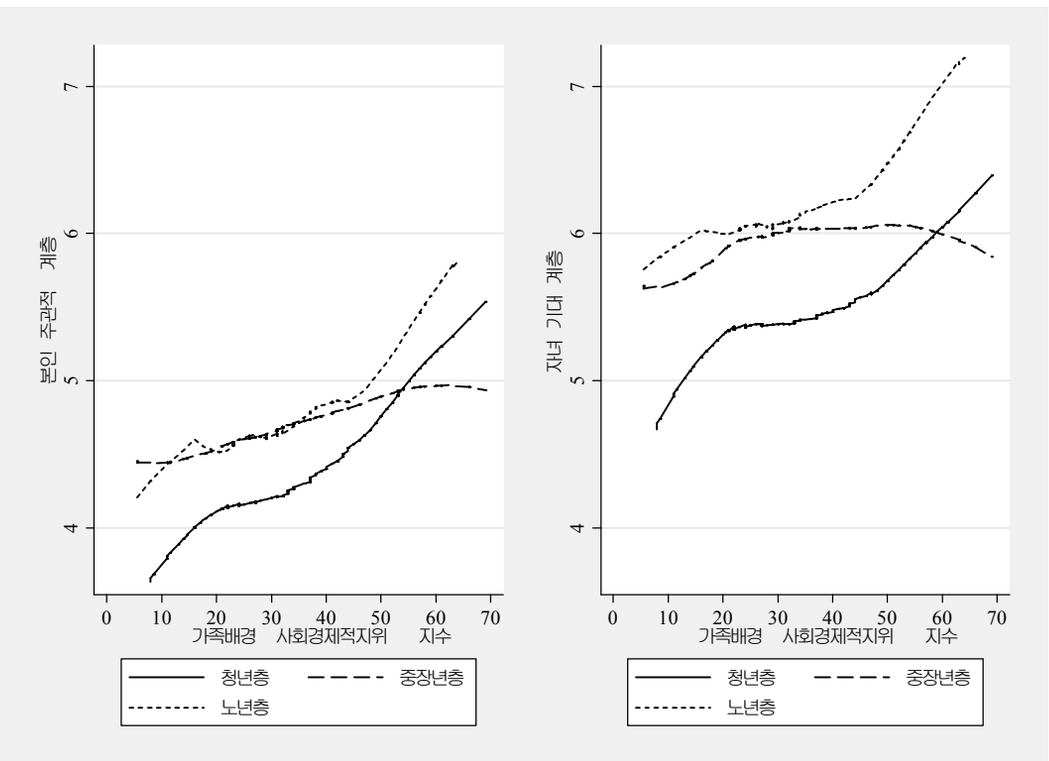
<그림9> 연령집단, 가족배경과 계층별 세금부담에 대한 인식의 관계



한편 세대 간 사회이동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도 청년층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10>의 첫 번째 그래프는 가족 배경에 따라 자신의 현재 계층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청년층이 중장년층, 노년층에 비해 자신의 주관적 계층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 생애과정 상 소득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청년층의 연령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현재 자신의 주관적 계층의식 간에는 뚜렷한 선형적 정방향의 선형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에서는 선형관계의 기울기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 내에서 가족 배경에 따른 주관적 계층의식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가족 배경이 유사한 수준으로 낮은 경우 청년층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자신의 주관적 계층을 평가하는 정도 보다 자신의 주관적 계층을 훨씬 낮게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자녀의 사회적 계층(자녀가(혹은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가 있다고 가정할 때) 자신의 연령에 도달했을 때 기대되는 사회적 계층)에 대한 기대가 가족 배경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계층에서 자신의 현재 주관적 계층 보다는 자녀의 사회적 계층이 더 높을 것으로 인식하

고 있어 세대 간 상향 이동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년층은 중장년층, 노년층에 비해 자녀의 상향이동 정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청년층도 자신의 현재 주관적 계층 보다는 자녀의 계층을 더 높게 기대하고 있어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으며 계층 이동의 정도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청년층이 세대 간 이동에 가장 비관적이라는 점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청년층 내에서 가족 배경에 따른 사회이동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 출신의 청년들은 중장년, 노년층에 비해 자녀의 기대 계층 수준이 확연히 낮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유사한 수준의 중장년층 보다 더 큰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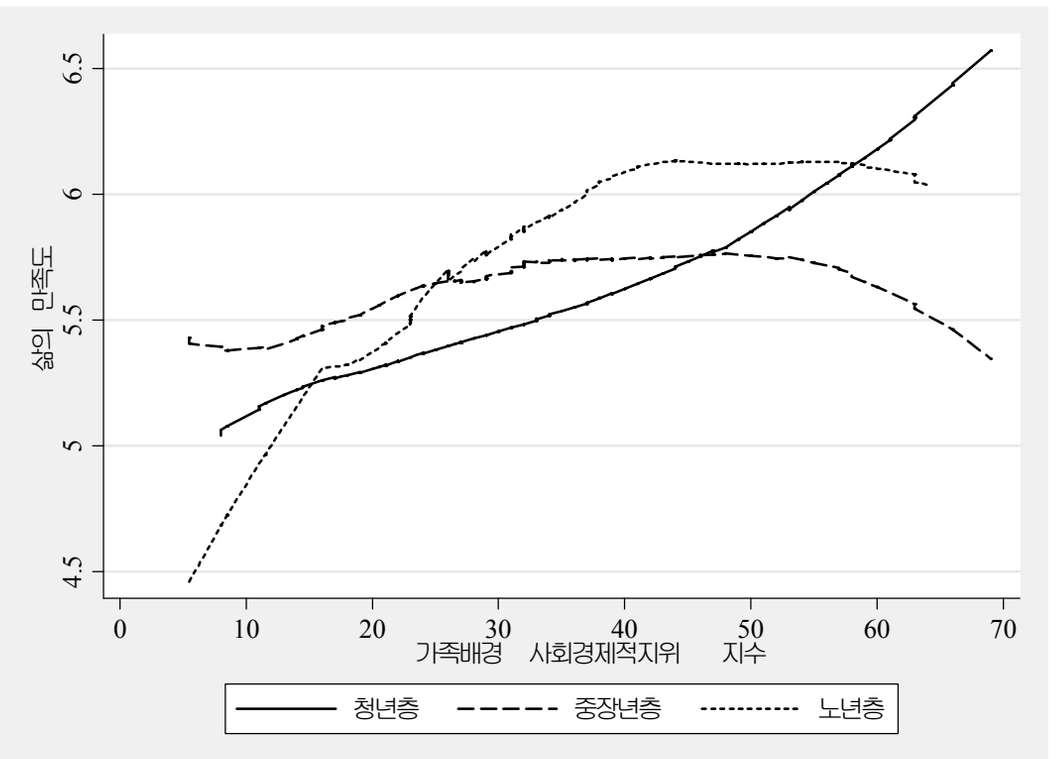
<그림10> 가족배경에 따른 세대 간 사회이동 인식



마지막으로 <그림11>은 삶의 만족도에서의 가족 배경의 영향력을 연령집단 별로 보여주고 있다. 모든 것을 고려하여 귀하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가 하는 문항에 대해 10점 척도로 측정된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전체의 평균은 5.6점 정도이며 4점-6점 사이에 전체 응답의 50% 정도가 집중되어 있다. 연령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면 5.63-5.74 정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그림11>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청년층에서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족배경과 삶의 만족도 간의 선형적 관계이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만족도 간에 역-U자형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출신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다가 정체되

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 청년층에서는 뚜렷하게 선형적인 정방향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림11> 연령집단 별 가족 배경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불평등인식, 기회공정성 인식, 대우공정성인식, 사회이동 인식, 정치성향, 그리고 삶의 만족도 등 주관적 인식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해 볼 때 다른 어떤 연령집단에서보다 청년층에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선 두 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노동시장 기회에서 그리고 가족 형성의 기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청년층의 인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내 객관적 기회 불평등이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낳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세대 내 주관적 인식 차이가 큰 청년층이 세대 내 인식의 차이가 적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 동질적인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함의한다.

7. 토론 및 결론

불확실성의 증가와 탈표준화된 생애과정(Blossfeld et al.,2006), 남성 생계부양-여성 가사돌봄으로 성별분업화된 핵가족모델의 붕괴(Beck, 2002)로 특징지어지는 후기산업사회의 조건 속에서 오늘날 청년기는 ‘인생의 혼잡시간대(the rush hour of life)’로 불리기도 한다(Tremmel et al., 2010). 일과 가족이라는 두 영역의 시작 시기는 점점 지연되고 있으나 완료 시기는 생물학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복

잡한 시간대에 노동시장에서의 첫 단추와 연애-결혼-출산-육아로 이어지는 가족생활의 첫 단추를 동시에 꿰어야 하는 여성과 남성 청년들에게 기회의 평등이 청년기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이후 생애과정 전반의 삶의 질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드러난 청년기 기회불평등의 양상은 자못 심각하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청년층에서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노동시장 기회와 가족 형성의 기회 모두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출신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들은 서울소재대학 진학, 대학에서의 경험(리더쉽, 해외연수 등)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 출신의 청년들에 비해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취업율)에서도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특히 30대 여성). 가족 배경의 영향력은 가족 형성의 기회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들은 데이트경험도 상대적으로 적고 결혼과 출산 의사 등에서도 뚜렷하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특히 남성). 이러한 청년층 세대 내 기회의 격차는 주관적 인식의 다양한 측면에 반영되어 청년층은 주관적 인식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결정력이 다른 어떤 연령집단보다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젠더 격차이다. 여성과 남성은 교육 성취(학벌, 대학에서의 경험)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성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에서의 성별 격차는 20대 보다는 30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여서도 여성들은 정규직 취업 비율이 낮으며 종사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지위에서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한편 가족 형성의 기회에 있어 젠더와 학력, 가족배경, 노동시장 지위 등의 상호작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은 저학력일수록 결혼, 출산 의사가 낮은 데 반해 여성들은 고학력일수록 결혼, 출산 의사가 낮은 특징 등이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청년층에서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낙관주의가 계층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은 중장년층, 노년층에 비해 자신의 현재 계층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년, 노년층은 가족 배경과 현재 자신의 주관적 계층 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데 반해 청년층은 매우 뚜렷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청년층에서는 가족 배경이 낮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대한 기대가 낮았으며 또한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결혼과 출산 의사가 뚜렷하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흔히 오늘날 청년들을 삼포세대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청년층 내 삼포현상이 계층화되어 있는 것이다.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가 객관적 불평등과 주관적 불평등 인식 사이를 매개하며 객관적 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기존 연구들(McCall and Manza, 2011)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청년층의 계층화된 낙관주의는 이 연령층이 객관적 불평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리라 예상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청년층에서 훨씬 더 계층화된 불평등 인식(6장)이 팽배해 있다는 점은 청년층이 동질적인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조건이 되고 있다. 현재 청년층이 객관적 불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세대 내 인식의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세력화는 어려

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오늘날 청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족배경의 효과는 한국사회가 개방적 사회(open society)에서 폐쇄적 사회(closed society)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일자리 기회와 가족 형성 기회 모두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가족 배경과 젠더 등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결과가 이후 생애과정 전반에 걸친 누적적 (불)이익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도록 청년기의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적 개입과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김영미 and 한준, 2008. 내부노동시장의 해체인가 축소인가. 한국사회학, 42(7), pp.111-145.

김태기 · 남재량. 2000. “비정규직, 가교(bridge)인가 함정(trap)인가?” 『노동경제논집』 23(2): 81-106

정이환, 2013. 기업내부노동시장의 변화, 1982~ 2007. 한국사회학, 47(5), pp.209-240.

최율 and 이왕원, 2015. 청년층 취업선호도와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 한국사회학, 49(5), pp.1-44

Beck, U.,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Vol. 13). Sage.

Blossfeld, H.P., Klijzing, E., Mills, M. and Kurz, K. eds., 2006.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youth in society: The losers in a globalizing world. Routledge.

Chang, M. L. (2004). Growing pains: cross-national variation in sex segregation in sixteen developing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1), 114-137.

Chauvel, Louis, and Martin Schröder. "Generational inequalities and welfare regimes." Social forces (2014): sot156.

Chauvel, Louis. "Comparing welfare regime changes: living standards and the unequal life chances of different birth cohorts." In A Young Generation Under Pressure?, pp. 23-36.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0.

Erikson, Robert, and John H. Goldthorpe. The constant flux: A study of class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1992.

Lothaller, H., 2010. On the way to life-domains balance: Success factors and obstacles. In A Young Generation Under Pressure? (pp. 109-128). Springer Berlin Heidelberg.

McCall, L., & Manza, J. (2011). Class differences in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in the United States. e Oxford Handbook of American Public Opinion and the Media, ed. Robert Shapiro and Lawrence Jacobs. Oxford University Press pp.

McLanahan, S., 2004. Diverging destinies: How children are faring under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Demography, 41(4), pp.607-627.

Ridgeway, Cecilia L. Framed by gender: How gender inequality persists in the modern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Tremmel, J., 2009. A Young generation under pressure. Springer.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리포트를 무단전재 및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